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186호 [루체 제26060호] 주제 107 (2018)년 7월 5일 (목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온 세계가 공인하는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정치원로, 혁명의 대성인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김일성주석회고로드나이전국위원회가 6월 19일에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주체사상연구로 브리니아전국위원회 위원장 바셀레 오를레아누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

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

김일성주석회고 에티오피아

위원회가 6월 19일 아디스아

비파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에티

오피아 김일성-정경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인 에티오피

아-조선친선 및 현대성위현회

위원장 나가루 다그나체우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칭송하는 토론회, 회고모임,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

김일성주석회고 빌가리아위

위원회가 6월 20일 쏘파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빌가리

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아

마나스 이와노브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4돐에 즈음하여

회고모임, 사진전시회, 영화

감상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

김일성주석회고 방글라데슈위

위원회가 6월 21일에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방글

라데슈-조선친선 및 현대성위

위원회 위원장 엘리. 하문 아트 라

쉬드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

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

김일성주석회고 나이제리아

전국위원회가 6월 22일 아부자

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이

제리아인민주당 신용위현회

위원회 위원장 이브라힘 만투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4돐에 즈음하여

세계자주화위원회 위원장 쟁

제조인민의 청년전국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엘. 슈풀리

나고프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

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

김일성주석회고 브라질리아

위원회가 6월 21일 민스크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일성정경일명정 전국별라

우편회장 엘. 슈풀리

나고프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일성주석회고 브라질리아

위원회 위원장 엘. 슈풀리

나고프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일성주석회고 브라질리아

위원회 위원장 엘. 슈풀리

나고프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일성주석회고 브라질리아

위원회 위원장 엘. 슈풀리

나고프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일성주석회고 브라질리아

위원회 위원장 엘. 슈풀리

나고프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일성주석회고 브라질리아

위원회 위원장 엘. 슈풀리

나고프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일성주석회고 브라질리아

위원회 위원장 엘. 슈풀리

나고프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일성주석회고 브라질리아

위원회 위원장 엘. 슈풀리

나고프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일성주석회고 브라질리아

위원회 위원장 엘. 슈풀리

나고프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일성주석회고 브라질리아

위원회 위원장 엘. 슈풀리

나고프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일성주석회고 브라질리아

위원회 위원장 엘. 슈풀리

나고프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일성주석회고 브라질리아

위원회 위원장 엘. 슈풀리

나고프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일성주석회고 브라질리아

위원회 위원장 엘. 슈풀리

나고프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일성주석회고 브라질리아

위원회 위원장 엘. 슈풀리

나고프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일성주석회고 브라질리아

위원회 위원장 엘. 슈풀리

나고프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일성주석회고 브라질리아

위원회 위원장 엘. 슈풀리

나고프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일성주석회고 브라질리아

위원회 위원장 엘. 슈풀리

나고프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일성주석회고 브라질리아

위원회 위원장 엘. 슈풀리

나고프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일성주석회고 브라질리아

위원회 위원장 엘. 슈풀리

나고프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일성주석회고 브라질리아

위원회 위원장 엘. 슈풀리

나고프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일성주석회고 브라질리아

위원회 위원장 엘. 슈풀리

나고프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일성주석회고 브라질리아

위원회 위원장 엘. 슈풀리

나고프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일성주석회고 브라질리아

위원회 위원장 엘. 슈풀리

나고프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일성주석회고 브라질리아

위원회 위원장 엘. 슈풀리

나고프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 실화 영원한 생의 축복

원산시 장촌동 30인민반의 단종미을에 강원도군민발전소 건설지휘부 직속현 선전원 지영식의 가족이 살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파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어머니당입니다.』

지난 5월 어느날 지영식의 안해 리희순은 빌써 몇번체나 문밖을 내다보았다. (이 영감이 오늘은 오려나?) 하고 혼자소리처럼 뇌이는 그의 속은 편안한 생활에 물방울이 펴진 듯 바戢바戢 했다.

이렇게 속에 우여 기다리기를 그 몇해였던가. 그의 남편 지영식은 25살에 당원돌격대에 입대하여 지금까지 돌격대생활을 하여온다. 신혼살림때부터 시작된 이런 기다림이 리희순의 머리에 훤서리가 내리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아들에 이어 손자까지 본 지금에는 기다리는것도 어지간히 습관이 되었지만 이날따라 더욱 애를 태우며 유탑으로 떨어간 풍구길을 놀이 빠져나온다는 것은 바로 다음날이 남편이 예순 한살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지난해의 생일날도 남편은 돌격대에서 조용히 보내었다. 올해에는 소박하게 나마 생일상을 차리고 가족끼리라도 리희순이었지만 당시인 남편이 어직 그림자도 안보이고 아무 소식 없으나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해가 서산마루에 걸릴무렵 리희순은 더 참지 못하고 미당기에 나섰다. 별로 한적한것만 같은 아들에도 남편의 뜻까지 합쳐 잘 키우기 위해 애썼다.

어쩌다 남편이 집에 오는 날은 명절이었다. 그때마다 남편은 몰라보게 자란 아들을 물에 앉고 아버지가 이번에는 어떤 텁을 입여세웠다고, 또 어느 공장을 새로 완공했다고 희열에 넘쳐 말하곤 하였다. 이따금 집에 것드는 그런 회기로운 분위기가 리희순에게는 더없는 기쁨이고 행복이었다.

10여년전 어느 봄날, 그날 도 남편의 생일이었다.

그때 남편은 멀지 않은 원산 청년발전소 건설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생일날인데 잠간 왔다갔으면 하고 전갈을 떠났지만 남편은 『생일은 무슨 생일, 발전소건설이나 끝내고 보지.』라고 하며 끝내 오지 않았다.

그날 집에 들었다면 한 척이 해성이 아버지가 이제는 나이도 있는데 돌격대 생활은 그만하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이면 되근에는 초보적인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 당원돌격대 대원이라는 그 한미더니 다지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한집에서 사는 날은 많지 않아도, 집세 같은 그리 요란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그들부분은 화목하고 행복하였다.

당의 구상마다 진행되는 중요 대상건설에 은빛을 비쳐놓는 것과 함께 이르렀던 것이다. 이제는 남편이 마음을 물려먹었으면 하는 생각

뒤바라지를 위해 성심성의를 다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에 없는 아들에도 남편의 뜻까지 합쳐 잘 키우기 위해 애썼다.

어쩌다 남편이 집에 오는 날은 명절이었다. 그때마다 남편은 물에 앉고 아버지가 이번에는 어떤 텁을 입여세웠다고, 또 어느 공장을 새로 완공했다고 희열에 넘쳐 말하곤 하였다. 이따금 집에 것드는 그런 회기로운 분위기가 리희순에게는 더없는 기쁨이고 행복이었다.

『여기 가 지영식동무의 집이 훌륭습니까?』

리희순이 그렇다고 어정쩡하게 대답하자 그들은 어려 지침들을 집안으로 날라들었다. 함께 온 원산시의 한 일군이 나서서 말했다.

『지영식동무의 생일상을 잘 차려줄때 대한 도당위원회의 위임을 받고 왔습니다.』

회서처럼 굽어진 리희순의 귀전에 원군의 이야기가 꿈결에서 처럼 들려왔다.

지난 5월초, 강원도군민발전소 건설지휘부 직속현대가 일하는 공장에 내려갔던 도당 위원회일군인 박원철은 수십년 간 돌격대원으로 나리의 기념비적 창조물건설에 헌생을 바쳐온 선전원 지영식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도당위원회 책임임

도 간절하였다. 그런 속에 세월이 흘러 남편은 어느덧 예순한살에 이른것이었다.

『올해는 정말 그냥 넓길수 없어.』

남편이 정오지 않으면 생일상을 꾸려가지고 남편의 돌격대가 일하는 공장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리희순은 강심을 먹었다.

이때 소령의 경직소리가 났다. 이어 여러 사람들이 그의 집마당에 들어섰다.

『여기 가 지영식동무의 집이 훌륭습니까?』

리희순이 그렇다고 어정쩡하게 대답하자 그들은 어려 지침들을 집안으로 날라들었다. 함께 온 원산시의 한 일군이 나서서 말했다.

『지영식동무의 생일상을 잘 차려줄때 대한 도당위원회의 위임을 받고 왔습니다.』

회서처럼 굽어진 리희순의 귀전에 원군의 이야기가 꿈결에서 처럼 들려왔다.

『지난날 한중도 못되는 착취제과 금과 일제놈들의 유용장으로 키운다.』

트럭 속곳에 들어온 허우정과 농민들이 주변 경치와 어울려 마치도 후양소를 방글씨 한다는 우려의 말에 주평수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날 한중도 못되는 착취제과 금과 일제놈들의 유용장으로 키운다.』

주평수동무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이 료양소가 환자치료사업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우리가 료양소를 돌아본 시간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인민족, 인민사랑의 희원인 우리 나라에 공기처럼 흐르는 가장 아름답고 참된 사랑과 정에 대하여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아름다운 저녁노을이 비명 료양소의 하늘에 은은한 노을로 물려졌다.

최평수동무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이곳에 인민의 휴양

기지로 키운다.』

『여기 가 지영식동무의 집이 훌륭습니까?』

리희순은 벌 50대에 이르렀던 것이다.

트럭 속에서 농민들은

남편을 보며 리희순은 생각

나를 찾았습니다.』

『조국을 위해 변함없는 애국충정의 한길을 걷는 전사를 우리

당은 언제나 있지 않으며 영원한 생의 죽복을 안겨주준다.』

본사기자 허명숙

경성군의 하온포지구는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명승지들중의 하나이다.

바로 이런 경치이름다운 곳에 김정숙묘당소가 자리잡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식 사회주의에서는 인민의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돌보아주는것이 당조직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한 돌격대원의 생일상을 꾸려가지고 남편의 돌격대가 일하는 공장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리희순은 강심을 먹었다.

이때 소령의 경직소리가 났다. 이어 여러 사람들이 그의 집마당에 들어섰다.

『여기 가 지영식동무의 집이 훌륭습니까?』

리희순이 그렇다고 어정쩡하게 대답하자 그들은 어려 지침들을 집안으로 날라들었다. 함께 온 원산시의 한 일군이 나서서 말했다.

『지영식동무의 생일상을 잘 차려줄때 대한 도당위원회의 위임을 받고 왔습니다.』

회서처럼 굽어진 리희순의 귀전에 원군의 이야기가 꿈결에서 처럼 들려왔다.

『지난날 한중도 못되는 착취제과 금과 일제놈들의 유용장으로 키운다.』

트럭 속에서 농민들은

남편을 보며 리희순은 생각

나를 찾았습니다.』

『조국을 위해 변함없는 애국충정의 한길을 걷는 전사를 우리

당은 언제나 있지 않으며 영원한 생의 죽복을 안겨주준다.』

본사기자 허명숙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 항일의 너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자욱이 어려있는 뜻깊고 자랑높은 곳이였다.

우리는 료양소일군들의 이야 기를 들으며 온 나라의 이름난 운천, 약수터마다에 자리잡고 있는 병원과 료양소들과 바란가지로 이곳에도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아끼는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고귀한 뜻이 소중히 기록되어져 있을을 기습깊이 되새겨보게 되었다.

『우리식 사회주의에서는 인민의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돌보아주는것이 당조직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한 돌격대원의 생일상을 꾸려가지고 남편의 돌격대가 일하는 공장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리희순은 강심을 먹었다.

이때 소령의 경직소리가 났다. 이어 여러 사람들이 그의 집마당에 들어섰다.

『여기 가 지영식동무의 집이 훌륭습니까?』

리희순이 그렇다고 어정쩡하게 대답하자 그들은 어려 지침들을 집안으로 날라들었다. 함께 온 원산시의 한 일군이 나서서 말했다.

『지영식동무의 생일상을 잘 차려줄때 대한 도당위원회의 위임을 받고 왔습니다.』

회서처럼 굽어진 리희순의 귀전에 원군의 이야기가 꿈결에서 처럼 들려왔다.

『지난날 한중도 못되는 착취제과 금과 일제놈들의 유용장으로 키운다.』

트럭 속에서 농민들은

남편을 보며 리희순은 생각

나를 찾았습니다.』

『조국을 위해 변함없는 애국충정의 한길을 걷는 전사를 우리

당은 언제나 있지 않으며 영원한 생의 죽복을 안겨주준다.』

본사기자 허명숙

했다.

처음으로 들린 곳은 3파였

다. 파장 리화수, 의사 린송순등

무를 비롯한 피의 의료군들이

도매온천을 리용한 환자치료

의료군들이 이곳에

돌아온 것이다.

우리는 료양소일군들의 이야

기들을 들으며 온 나라의 이름난

운천, 약수터마다에 자리잡고

있는 병원과 료양소들과 바란가지

로 이곳에도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아끼는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고귀한 뜻이 소중히

기록되어져 있을을 기습깊이 되새겨보게 되었다.

『우리식 사회주의에서는 인민의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돌보아주는것이 당조직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한 돌격대원의 생일상을 꾸려가지고 남편의 돌격대가 일하는 공장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리희순은 강심을 먹었다.

이때 소령의 경직소리가 났다. 이어 여러 사람들이 그의 집마당에 들어섰다.

『여기 가 지영식동무의 집이 훌륭습니까?』

리희순이 그렇다고 어정쩡하게 대답하자 그들은 어려 지침들을 집안으로 날라들었다. 함께 온 원산시의 한 일군이 나서서 말했다.

『지영식동무의 생일상을 잘 차려줄때 대한 도당위원회의 위임을 받고 왔습니다.』

회서처럼 굽어진 리희순의 귀전에 원군의 이야기가 꿈결에서 처럼 들려왔다.

『지난날 한중도 못되는 착취제과 금과 일제놈들의 유용장으로 키운다.』

트럭 속에서 농민들은

남편을 보며 리희순은 생각

나를 찾았습니다.』

『조국을 위해 변함없는 애국충정의 한길을 걷는 전사를 우리

당은 언제나 있지 않으며 영원한 생의 죽복을 안겨주준다.』

본사기자 허명숙

경성군의 하온포지구는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명승지들중의 하나이다.

바로 이런 경치이름다운

불멸의 자욱이 어려있는 뜻깊고

자랑높은 곳이였다.

우리는 료양소일군들의 이야

기들을 들으며 온 나라의 이름난

운천, 약수터마다에 자리잡고

있는 병원과 료양소들과 바란가지

로 이곳에도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아끼는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고귀한 뜻이 소중히

기록되어져 있을을 기습깊이 되새겨보게 되었다.

## 반드시 결산되어야 할 반통일분자들의 죄악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가 대화와 평화로 지향되고 있는 시기에 7·4 공동성명 발표 4·6 꽃을 맞이한 우리 거제는 조국통일운동의 지난 역사들 간회 깊이 둘이 보고 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 공동성명의 발표는 우리 거제의 조국통일운동을 크게 고무주동하였으며 새 세기에 들어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그리고 4·27 선언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민족의 종의가 점대 성되어온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확증된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 공동선언, 10·4 선언에 대한 진장상태가 조성되고 전쟁위험은 나날이 커졌다.

하지만 남북사이에 이룩된 합의들은 옹

당한 걸실을 보지 못하였다. 그것은 남조선의 력대 보수층에 따른 것이다.

남조선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과 선언들을 부정하고 동족대결과 사대국제통에 팽분해온 용납 못할 통일역적무리이다.

남조선의 《유신》독재자는 역사적인 7·4 공동성명을 서슴없이 훼버리고 민족분열을 통일하기 위해 네살짜리 아버지 《이 한장》의 종이장에 우리의 운명을 점칠 수 없다고 고집하였다. 역도는 《대동령》방지자를 쓰자마자 《6·15 식습관》과 기념행복하게 되었으며 6·15 시대를 그 허위에 끌어들여온 것은 《유신》독재자의 반통일적죄악을 짐승력을 국악한 민족역적행위였다.

역도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진장상태가 조성되고 전쟁위험은

민족분열선언, 북남대결선언이었다.

7·4 공동성명을 반대해 나선 《유신》독재자에게 있어서 조국통일 3대원칙은 인증에도 없었다. 역도는 민족자주의 원칙에 배치되며 《유엔은 외세가 아니》라

느니, 《미군주둔은 길면 길수록 좋다》라

느니 하는 반통일적인 계획을 늘어놓았

다. 그리고 평화통일원칙에는 대결과 전

비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는 국악

한 《반공》소동으로 도전해 나섰다.

《유신》독재자가 《통일의 비극이 분별

의 비극보다 더 크다》라고 공포연히 훼치

면서 대결작동에 광란적으로 예매 달린

결과 북남사이에는 정치, 군사적으로 첨

예에 한 진장상태가 조성되고 전쟁위험은

나날이 커졌다.

남조선의 《유신》독재자는 지난 세기

70년대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험으로 하는

7·4 공동성명을 유린하였다. 그 후에는

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악랄하게 훼손하면서 그의 리행

을 가로막는 반통일적동장을 부리였다.

리평박역도가 거제의 통일원칙에는椅계

어려웠던 8·15 시대를 대결의 파괴에

되돌려세운 것은 《유신》독재자의 반통

일적죄악을 짐승력을 국악한 민족역적 행위였다.

역도는 《대동령》방지자를 쓰자마자 《6·15 식습관》과 기념행복하게 되었으며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

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숭고한 리념을 《편

한 민족주의》, 《배타적민족주의》로 결

고들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을 《용기성명문서》로 대체하면서 《자유민주주의》제체와의 통일이 최후의 궁극적 목표라고 해서였다.

역도가 들키나온 《투발성명》은 사실

상 7·4 공동성명을 전부정하고 《두

개 조선》조작총계를 정책으로 선포한

남사이의 대회와 협력을 차단하는 한편

10·4 선언을 감히 《할것》과 《못할것》

《나중에 할것》등으로 칠칠하다 못해 《전면

무효》를 선고하는 당동을 부린것은 오늘도

우리 거제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박근혜역도 역시 제 애비인 《유신》독

재자와 선임자의 본래대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미구 것 같았으면서

그리고 박근혜역도 역시 제 애비인 《유신》독

재자와 선임자의 본래대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미구 것 같았으면서

그리고 박근혜역도 역시 제 애비인 《유신》독

재자와 선임자의 본래대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미구 것 같았으면서

그리고 박근혜역도 역시 제 애비인 《유신》독

재자와 선임자의 본래대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미구 것 같았으면서

그리고 박근혜역도 역시 제 애비인 《유신》독

재자와 선임자의 본래대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미구 것 같았으면서

그리고 박근혜역도 역시 제 애비인 《유신》독

재자와 선임자의 본래대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미구 것 같았으면서

그리고 박근혜역도 역시 제 애비인 《유신》독

재자와 선임자의 본래대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미구 것 같았으면서

그리고 박근혜역도 역시 제 애비인 《유신》독

재자와 선임자의 본래대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미구 것 같았으면서

그리고 박근혜역도 역시 제 애비인 《유신》독

재자와 선임자의 본래대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미구 것 같았으면서

그리고 박근혜역도 역시 제 애비인 《유신》독

재자와 선임자의 본래대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미구 것 같았으면서

그리고 박근혜역도 역시 제 애비인 《유신》독

재자와 선임자의 본래대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미구 것 같았으면서

그리고 박근혜역도 역시 제 애비인 《유신》독

재자와 선임자의 본래대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미구 것 같았으면서

그리고 박근혜역도 역시 제 애비인 《유신》독

재자와 선임자의 본래대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미구 것 같았으면서

그리고 박근혜역도 역시 제 애비인 《유신》독

재자와 선임자의 본래대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미구 것 같았으면서

그리고 박근혜역도 역시 제 애비인 《유신》독

재자와 선임자의 본래대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미구 것 같았으면서

그리고 박근혜역도 역시 제 애비인 《유신》독

재자와 선임자의 본래대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미구 것 같았으면서

그리고 박근혜역도 역시 제 애비인 《유신》독

재자와 선임자의 본래대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미구 것 같았으면서

그리고 박근혜역도 역시 제 애비인 《유신》독

재자와 선임자의 본래대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미구 것 같았으면서

그리고 박근혜역도 역시 제 애비인 《유신》독

재자와 선임자의 본래대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미구 것 같았으면서

그리고 박근혜역도 역시 제 애비인 《유신》독

재자와 선임자의 본래대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미구 것 같았으면서

그리고 박근혜역도 역시 제 애비인 《유신》독

재자와 선임자의 본래대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미구 것 같았으면서

그리고 박근혜역도 역시 제 애비인 《유신》독

재자와 선임자의 본래대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미구 것 같았으면서

그리고 박근혜역도 역시 제 애비인 《유신》독

재자와 선임자의 본래대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미구 것 같았으면서

그리고 박근혜역도 역시 제 애비인 《유신》독

재자와 선임자의 본래대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미구 것 같았으면서

그리고 박근혜역도 역시 제 애비인 《유신》독

재자와 선임자의 본래대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미구 것 같았으면서

그리고 박근혜역도 역시 제 애비인 《유신》독

재자와 선임자의 본래대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미구 것 같았으면서

그리고 박근혜역도 역시 제 애비인 《유신》독

재자와 선임자의 본래대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미구 것 같았으면서

그리고 박근혜역도 역시 제 애비인 《유신》독

재자와 선임자의 본래대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미구 것 같았으면서

그리고 박근혜역도 역시 제 애비인 《유신》독

재자와 선임자의 본래대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미구 것 같았으면서

그리고 박근혜역도 역시 제 애비인 《유신》독

재자와 선임자의 본래대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미구 것 같았으면서

그리고 박근혜역도 역시 제 애비인 《유신》독

재자와 선임자의 본래대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미구 것 같았으면서